

## ■ ( 언론 동향 ) 2021.11.8. "디지털타임스" 보도

### ○ 요소비료 4배 급등했는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농식품부 2022년 예산 8700억원 증액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요소비료 가격이 작년 말에 비해 4배 이상 올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요소 비료의 수입 중단 후, 현재 농협이 확보 중인 요소 비료는 3~4만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요소 비료는 매년 46만톤을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 의존 비율이 48%,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나 바레인, 카타르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소 가격이 국제적으로 오르고 비료 가격도 많이 올랐다"며 "요소 확보를 위해 농협과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곧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량 수입하는 것에서 국내 대체 방안을 추가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말 시가 기준으로 현재 요소 비료 가격이 4배가 올랐다"며 "농협의 4450억원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농민 부담은 이보다 더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무기질비료 1500억, 유기질 비료 1000억원 지원사업 예산을 더 증액하고, 원가연동제를 발동해 농협이 비료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비료의 97% 구매하고 있어 농협이 단가를 올리면 비료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원가 상승분을 농협이 반영해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농협이 업체와 비료단가 계약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를 여러 차례 나눠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질 비료(화학비료) 도입 지원에 대해선 "무기질 비료 지원정책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농업직불금도 감액하는데, 예결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세출 및 지출 분에서 8702억200백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169억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개발 사업 786억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 관리 사업 482억원, ASF 대응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에 68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총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이 증액됐다.

<이민호 기자>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1. 9.(화)

## < 국제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11.4)>

(단위 : US\$/톤, %)

구 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11~12월 평균 (A)	3월 평균	6월 평균	9월 평균	10월 평균	1~10월 평균	10/28	11/04 (B)	B/A	
환 율	매매 기준율	1,106	1,131	1,121	1,169	1,183	1,136	1,174	1,172	106	
요 소	프틸	중국, FOB	278	346	423	450	628	411	633	633	228
	그레놀	중동, FOB	264	362	439	490	754	436	814	895	339
		중국, FOB	281	352	432	468	649	420	645	645	230
	평 균		274	353	431	469	677	422	697	724	264
암모니아	동 아 시 아, CFR	297	453	631	646	637	547	650	660	222	
염화칼륨	동남아, CFR	235	269	314	548	590	366	590	600	255	
인산암모늄 (DAP)	중국, FOB	365	558	560	634	637	561	637	752	206	
조인산	인도, CFR	689	795	998	1,160	1,160	976	1,330	1,330	193	
인광석	인도, CFR	101	113	139	183	183	142	183	183	181	
	북아프리카, FOB	83	93	109	115	115	103	115	115	139	
유황	뱅크버, FOB	82	179	177	187	195	171	199	203	248	

□ 올해초부터 비료 수요 증가, 무역분쟁, 물류비 상승 등 원인으로 요소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 요소는 중국내 우선공급 및 비축 등 수출제한 조치로 수급 불안 발생, 전년말 대비 평균 264% 폭등

- 중동산 요소가격은 전년말 대비 339% 폭등, 운임포함(80\$)하면 895+80=975\$ 거래임

- 인도 국영기업 RCF는 11.1 입찰에서 FOB 892.5~897\$ 가격선에서 465천톤 요소 확보

- 이집트산은 CFR 923\$ 150천톤, 오만산은 FOB 897\$ 가격 기록

- 중국 수출통제 조치로 수출제외는 없으며, 인도네시아 또한 현물 판매가 없다고 전해짐

○ 암모니아는 유럽내 암모니아 생산업체 40% 감축과 영국 비료공장 중단 등의 조치로 전년말 대비 222% 폭등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1. 9.(화)

- 염화칼륨은 캐나다 광산 작업 중단 및 벨라루스 수출제재로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말 대비 255% 폭등
- 인산암모늄은 중국 내수 물량확보 차원으로 수출중단, 운송차질 등 수급 불안 가중으로 전년말 대비 206% 급등
  - 중국이 베트남에 공급하는 원료를 통제함에 따라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DAP를 수입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
  - 내년도 요소와 함께 DAP 원료확보에 비상이 발생한 상황임